

» 하반기 육계 전망

장 · 단기적 수급대책 필요

- 월드컵, 북 특수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 어려워 -



심 민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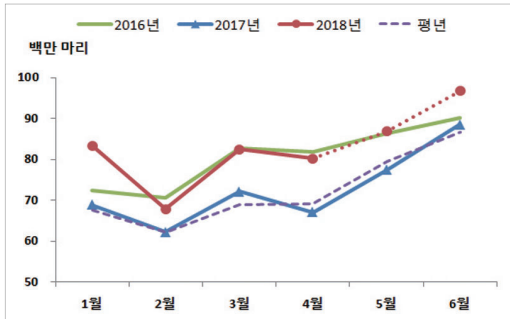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8년 도계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육계 산지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닭고기 생산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육계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2018년 상반기 육계 산업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반기 육계산업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2018년 상반기 육계산업 동향

2017년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8년 1~4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3.0% 증가한 475만 마리로 추정된다. 종계 생산성도 향상되면서 2018년 상반기 육용 실용계 병아리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다.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8년 1~4월 도계 마릿수는 AI 여파로 병아리 공급이 부족했던 작년 동기간 대비 16.1%, 공급과잉으로 불황이 지속되었던 2016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5~6월 도계 마릿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상반기 총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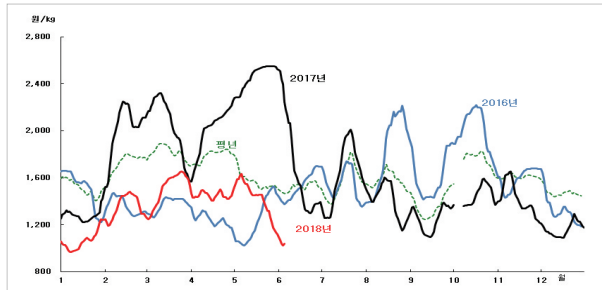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도표1〉 도계 마릿수 동향 및 전망

2016년 대비 2.5% 증가한 4억 9,59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8년 1~5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증가로 전년 동기간보다 29.0% 하락하였다. 특히 1월에는 최근 10년간의 동월 가격 중 가장 낮은 kg당 1,071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추위로 인한 대담 부족, 일부 계열업체의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구매 증가로 육계 가격은 생산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6월 현재 평균가격은 1월보다도 낮은 1,052



주 : 평년은 13~17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 가격)

〈도표2〉 육계 산지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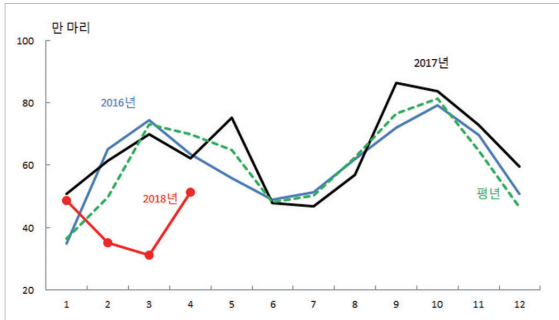
원/kg로 나타났다.

6월 중순 월드컵으로 인한 소비 증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닭고기 생산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육계 평균 산지 가격은 kg당 1,350원으로 전년보다 29.4%, 평년보다 17.3% 하락할 전망이다.

2. 2018년 하반기 육계 산업 전망

2018년 하반기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입식(2017년 하반기~2018년 4월)은 전년 동기간(679만)보다 8.7% 감소한 620만 마리였다. 이는 2017년 미국 AI 발생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원종계 수입에 공백이 생겨 2018년 1분기 종계 입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종계 입식을 바탕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를 추정한 결과, 2018년 6~11월 병아리 생산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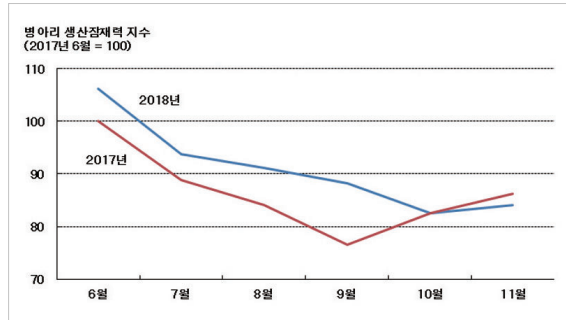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도표3〉 월별 육용 종계 입식 동향

재력 지수(5월 이후 추가 환우 없는 것으로 가정)는 전년 동기간보다 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1분기 종계 입식 감소로 10~11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지수는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종계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종란 재고도 증가하여 실제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가 전년보다 높아, 7~8월 여름철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각각 5.7%, 4.2% 증가한 1억 879만, 9,279만 마리로 전망되며, 7월 육계 산지 가격은 kg당 1,300~1,500원, 8월은 kg당 1,300~1,400원으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이 늘어나 육계 산지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치는 5월 이후 계열업체의 환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환우 진행 여부에 따라 육계 가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자료 :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도표4〉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 추이

복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육계산업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복날 보양식이 다양화되면서 닭고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급물량은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산지 가격 상승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이다.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계열업체별 종란 재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상반기 종계 입식 감소에 대한 기대심리로 환우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병아리 생산잠재력 감소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병아리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원종계 수입은 20만 수 이상이다. 원종계 수입 공백 문제 해소로 종계입식은 5월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계산업에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 조절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친다. **양계**